



거룩한 사랑

알리는 뉴스레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정상들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목 차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2 쪽
과다루페 성모님 축일	4 쪽
순례의 사진들	6 쪽
CUHA 최신 정보	8 쪽
비통한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9 쪽
생명을 위한 행진과 태아묵주 기도	10 쪽
순례의 증언들	12 쪽
영적 여정 - 제11편	14 쪽
어머니의 탄원	22 쪽

“거룩한 사랑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절대로 바뀌지 않고 언제나
존재한다.

거룩한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생각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이에게 지금 이 순간의
도전으로 남아있다.”

(복되신 어머니 - 2014년 1월 9일)

에큐메니컬(Ecumenical)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Ecumenical) 선교회와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현, 그리고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 목격증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선경지명 (visions),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거의 매일 모린에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노력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들에서 인용된 다음 인용문들은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에 대한 명확성을 줍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낙태종식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소개하는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

마침기도와 함께 5단의 묵주를 사용하는 너희 기도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낙태종식을 도울 것이다.

다음 지향들을 위한 기도:

- 1 단 하느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 2 단 모든 합법화된 낙태를 폐지하기를 바라며.
- 3 단 모든 임신부들이 태내의 귀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 4 단 낙태를 고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바라며.
- 5 단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에 관여해 온 모든 사람들:
 - 어머니와 아버지 들,
 - 건강 보호 서비스 종사자들,
 - 입법부 의원들,
 -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혹은 행동의 부족으로 낙태를 지지해 온 이들의 내적 치유를 바라며.

www.RosaryOfTheUnborn.com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확대된 묵주알 사진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 묵주

주문: 전화 440-327-4532 혹은 온라인 주문.

묵주 가격: 태아 묵주 - \$24.95;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 \$12.95

제한된 기간: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구입 시에 태아 묵주 손가락 카드 (10개) 무료 제공.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 2013년 12월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심)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찬미.”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에게 희망과 엄격한 경고를 주러 왔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희망을 가져라. 하느님과 화해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과거에 세력을 얻었던 모든 문명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아라.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나는 몇 세기 전 과달루페에 발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왔다. 아즈텍(Aztec 멕시코 원주민) 주민들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거짓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들은 이교도들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자유의지의 거짓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낙태를 실행한다. 모든 낙태와 더불어 하느님의 성심과 세상의 마음 사이의 심연이 크게 벌어진다. 어떻게 이 죄를 지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조합이나 정부가 번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법 [십계명들]에 대한 반항은 진리에 대한 반항이다. 이 반항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일치와 평화를 약화시킨다. 세상의 복지는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의 일치에 달려 있다. 기억하고 있어라. 하느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너희가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 분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오늘 너희에게 주는 나의 경고에 너희가 주의한다면 많은 은총이 세상에 넘칠 것이며 백성과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지도력은 진리로 되돌아가고 하느님의 법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말이 회의주의(懷疑



主義, skepticism)의 오만한 풍문에서 흩어진다면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상황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정이가 지상에 내리실 것이다. 선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악은 선의 이름으로 그것의 파멸의 길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발현들과 권고에 대한 불신이 내 방문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진리를 꾸민 이야기로 변형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리석지 마라. 세상은 스스로 자초한 많은 문제들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변하지 않지만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한다.”

“너희의 천상 어머니로서 나는 다만 너희에게 경고하고 너희를 진리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너희가 현재에 선택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각자를 개인적으로 이곳에 초대하였고 너희는 여기에 오라는 나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너희를 너희 주위의 세상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진실에 관해서 긍정적인 증인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다. 바로 너희가 몹시 추운 기온에도 잘 견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몹시 차가운 반응에도 너희가 잘 견디기를 청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메시지들과 은총들의 따듯함은 너희가 노력하려고만 한다면 많은 마음을 녹힐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많은 사람들이 과달루페의 나의 성화상(聖畫像)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다.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 그리 해 왔다. 그러나 오늘, 나는 영원하고 우리의 하나 된 성상의 거룩한 심방들로 끌어들이는 내 사랑의 성상을 너희 마음에 그려주고 싶다.”

“오늘 나는 너희의 청원들을 천국으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순례의 사진들



“(특별한 은총 중 많은 것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여질 것이다.”

(예수님 - 2004년 12월 12일)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세상의 마음을 위한 기도



복되신 어머니께서 세상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를 만드신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협회는 이제 전지구를 걸쳐 34개 나라에서 1,800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23일 - 피에트릴치나의 비오(1887-1968)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의 부족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말을 설득하고 조장합니다.”

2013년 8월 26일 - “낙태죄는 오늘날 세상 마음의 정신적 경향의 두드러진 한 예이다. 낙태는 잉태의 순간에 생명의 실재에 대한 진리의 타협이다. 낙태는 부모에서부터 생명을 거스르는 이 범죄를 지지하는 입법자들에게까지 이르는 권력 남용이다.”

2013년 12월 12일 -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낙태와 더불어 하느님의 성심과 세상의 마음 사이의 심연은 더 크게 벌어진다. 어떻게 이 죄를 지지하는 어떤 종류의 조합이나 정부가 변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법 [십계명]에 대한 반항은 진리에 대한 반항이다.”

2013년 12월 26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의 온갖 형태 안에 현존한다. 낙태와 동성 간 결혼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내 진리다. 도덕의 타락을 제압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내 진리다. 십계명을 재정의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진리다. 나는 너희가 진리를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진리 안에서 나를 알아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은총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마음을 진리로 끌어들이 수 있다. 기도가 세상의 마음을 은총에 열어준다.”

2012년 5월 10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정치적인 선택이 되어 온 요즘에는 마음들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봉헌으로써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오직 거룩한 진리만을 지지하기를 결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하는 기도문**을 곧 지시하겠다. 이 봉헌을 바치는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상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에 계속 충실하여라. **세상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바치는 봉헌기도**를 전파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인자하시고 하나 되신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세상의 마음을 대신하여 바치는 저의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세상의 마음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제각각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마음이 이 봉헌의 결심을 더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옵 하나 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감의 은총을 세상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세상의 마음을 진리와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강화시켜 주소서. 이 천상의 영감으로, 세상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2년 5월 10일)

2013년 10월 28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된 사람들은 태아 목주기도와 태아를 위한 짧은 목주기도*의 전파에도 또한 헌신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은 낙태가 좌절될 때 까지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

* 3페이지 참조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연락처: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440-327-8006, Ext. 238 • childrenofuh@holyllove.org • www.hollylove.org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새로운 짧은 묵주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2014년 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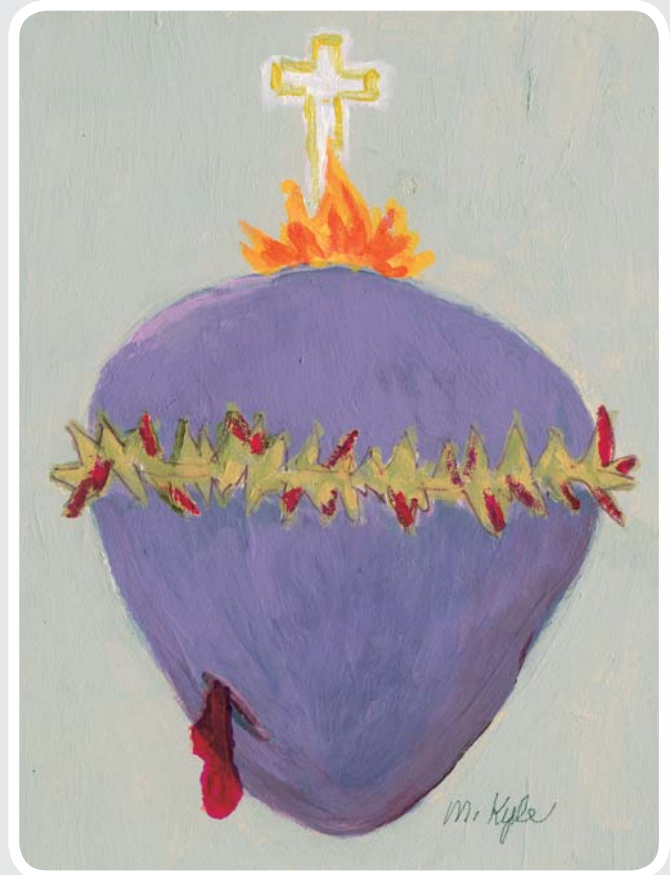
성모님께서 또다시 당신 손에 비통한 예수 성심을 들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죄들 즉,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이 천국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빈번히 넓히고 있다. 어떤 묵주알이라도 사용하여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의 각단을 다음 지향들을 위해 바치기를 바란다.”

1. “인류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2. “교의(敎義)인 신앙의 진리 (참된 신앙의 전통)이 인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옹호되기를 바라며.”
3. “세속 및 종교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결코 ‘특별 이해관계’의 집단에 편의를 도모하거나 영합하는 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4. “어떤 리더십도 종교의 자유를 없애지 않기를 바라며.”
5. “종교계 및 세속의 지도자들이 모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권력, 무질서한 권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친절한 목자로서 그들의 양떼의 복지를 위하여 이끌기를 바라며.”

“그리고 기도하여라:”

“사랑하옵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의 고통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이 기도를 부디 받아주소서. 이 짧은 묵주기도를 통해 당신의 정의(심판)을 가볍게 해주소서. 아멘.” ■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에 관하여

2014년 2월 4일

성모님께서 비통한 예수 성심을 들고 오셨으며, 성모님 앞에 펼쳐진 두루마리가 떠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짧은 묵주기도는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하면 인간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 이 기도는 진리를 밝히고 어떤 권한 남용의 책임을 묻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도는 충분히 바쳐지면 하느님의 정의(심판)을 진정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묵주 주의를 끌다 2014년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지난 수년간의 경우와 같이 금년에도 다시 2014년 생명을 위한 행진의 본부가 워싱턴 디시 (Washington, DC)의 캐피톨 힐 (Capitol Hills) 근교의 하얏트 리젠시 (Hyatt Regency) 였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에 진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태아묵주 (ROU)를 보러 오는데는 오랜 시간이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의 행사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던 열광적인 학생들이 달려와서 그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방문했습니다. 태아묵주는 자석처럼 호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접근하고 눈물방울 모양의 묵주알 안에 있는 작은 태아를 구경할 때, 우리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태아들이 그렇게 작은 구슬 안에 들어 있는지'를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묵주알을 집어 올리고 싶어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태아묵주 테이블에 모인 방문객의 많은 수보다 한층 더 감동시키는 것은 도보 행진자들의 많은 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의 몹시 추운 기온과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태아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하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중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인내하며 계속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콘스티튜션 가(Constitution Ave)의 랫셀 상원 사무실용 건물

(the Russell Senate Office Building)의 계단에 한 자리를 잡고 "예수님, 태아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소서"의 기도문이 묵주알의 화상 바로 아래에 대문자로 함께 적힌 태아묵주 포스터(poster)를 전시하였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고 기도문을 읽은 각 사람마다 동시에 그 기도문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머니에 새로운 태아묵주를 가지고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떠났습니다.

지갑 크기만한 태아묵주 손가락 카드 8000개를 버스 승객의 학생들과 성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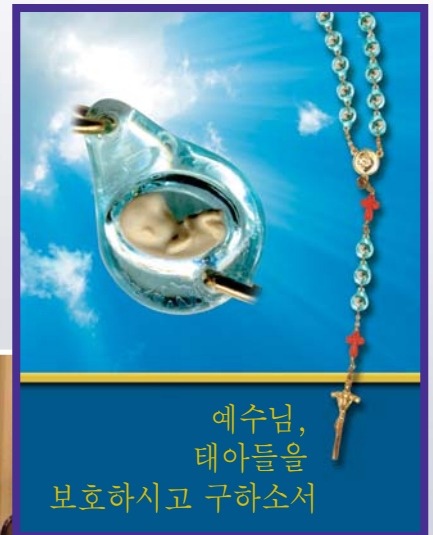
각별히 태아 묵주기도에 결부되어 있는 은총들이 태아 묵주기도 손가락 카드에도 역시 적용한다고 들었을 때 모두가 몹시 성모송의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만족하게 그리고 태아묵주 기도의 힘과 그들이 기도로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 줄 수 있는 차이를 완전히 알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태아 묵주기도에 결부되어 있는 특별한 은총들:

"이 묵주기도와 관련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약속은 이것이다. 곧 이 묵주알 (눈물방울)로 진심으로 끝까지 바쳐진 모든 묵주기도는 낙태죄에 대해 아직까지 받지않고 있는 처벌을 가볍게 한다."

(예수님 - 2001년 8월 3일) ■



예수님,
태아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소서



태아를 위한 기념비

흰색의 마돈나 국제 성지에 접근하는 보도의 왼쪽으로 몇 걸음 지점에 새로 세워진 태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2013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판이 나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에 의해 인정한 최고 재판소의 판례] 이래 전국에 세워진 100개 이상의 기념비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성지를 방문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서 낙태 죄의 합법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그것이 세상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깊은 의식과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복되신 어머니께서 목격 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 자매에게 이 기념비를 청하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태아의 기념비는 세계적으로 매 분, 시간, 날, 과 해마다 낙태되는 아기 수의 통계가 기록되어 있는 상패를 가진 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석은 눈물방울 형태의 검은 화강암입니다.



돌에는 다른 국적의 낙태된 세 아기들을 그분의 팔에 안고 계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에 아로새겨진 예레미야서(書)의 성경 구절이 또한 첨부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태내에 창조하시는 생명에 맡기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더욱이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기념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합법화된 낙태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낙태에 관여하고 지지하였던 사람들의 회개와 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의 묵상들이 바로 옆에 전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년 낙태되는 수백만의 아기들을 추모하여 부디 이 기념비를 찾아가고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을 바치십시오. ■

그것을 보았나요?

미네소타주에서 한 무리의 남녀들이 '낙태 종식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 궁극의 무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고판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였습니다.

2013년 5월 10일에 미네소타주에서 그 광고판이 올라갔습니다. 광고판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2013년 11월까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광고판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로 가는 52번 간선 도로 (Highway 52)에 위치하였습니다. ■



새로운 피부

나는 열다섯 살입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습진이 심했습니다. 너무 심하고 피가 흘러서 양손을 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내 다리를 한 번 쳐다보면, 울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연필이나 책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약물 치료들, 곧 의사, 환약, 약용 크림, 약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겪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내 피부를 치유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피를 흘리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내가 나의 식구들과 함께 왔을 때 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피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성모님 성지의 눈물의 호수에서 성모 마리아의 눈물을 피부에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2013년 4월 7일 하느님 자비의 주일에 왔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드렸으며 그분께서 그리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을 위해 희생으로서 바칠 것입니다.

나는 화끈거리는 피부를 가지고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불이 붙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발현 시간이 되었을 때까지는 나의 피부는 벌긩긩하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릎 꿇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는 놀라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호흡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습진이 있었던 나의 피부에 다양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나는 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목 부위와 손에 습진은 달랐습니다. 내가 (대절) 버스에 돌아갔을 무렵에는 내 이마와 귀, 손 등이 모두 흉터가 없어졌습니다.

습진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 습진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 피부에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것을 가져 본 일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모두는 습진에서 생긴 작은 흉터들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주일에 저에게 새로운 피부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그날의 매 순간 순간에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평생에 그와 같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것을 제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

BN-증인

*의학 노트(Medical note) -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기록 보관; 사진 - 미정.



치유

나는 2012년 4월에 눈의 흑색종(黑色腫) (melanoma) 진단을 받았습니다. 흑색종은 신속히 퍼질 수 있는 암의 일종입니다. 나의 외쪽 눈에 작은 종양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양들은 내 눈의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종양들은 2mm의 크기였습니다. 눈 조직에는 종양들에 양분을 공급하는 많은 암세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종양이 작았기 때문에 S 의사는 세 번에 걸친 온열 요법 치료를 추천했습니다. 치료는 종양을 줄어든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2012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2012년 10월 13일에 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2013년 2월에 예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은 흔히 신체의 폐와 간의 부분에 전이(轉移, metastasize)하기 때문에 나의 폐와 간의 면밀한 검사 (scans)를 끝내기를 또한 추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7일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성모님 축일에 나는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 와서 성모님께 탄원하였습니다. 나는 눈암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의사들이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피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나는 지평선상에 있는 나무들 위의 하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때에 나는 하늘을 가로질러 나란히(동시에) 움직이는 두개의 붉은 심장을 목격했습니다. 몇 초 후에 두 심장 모양의 구름이 태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태양 안에 심장 모양의 구름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치료를 위해 필라델피아의 윌스 안연구소(Wills Eye Institute)에 돌아갔을 때 암 세포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줄지어 늘어섰던 암 세포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의사들은 신중을 기해서 두 번째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금요일에 두 번째 치료를 마쳤습니다. 2013년 2월에 예정된 세 번째 치료는 여전히 암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의 면밀 검사(scan)와 폐의 컴퓨터 단층 촬영(CAT Scan)도 역시 맑았습니다.

나의 기적 이후에 나는 세 번의 추적 조사 방문으로 윌스 안과 병원의 안과 의사/종양학자에 다녀 왔으며 나는 아직도 암이 없습니다. 나는 5월에 또 다른 추적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눈의 암은 치명적이고 전개가 빠릅니다. 그것은 급속히 간장(肝臟)에 전이(轉移)합니다. ■

CMM- 증인

* 의학 증거 자료 - 미정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 신성한 사랑 - 거룩함

제11편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여정’ 시리즈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몇 분의 성인(즉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파두아의 안토니오 성인) 들께서 주신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들을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예수님께서 또한 신성한 사랑 혹은 거룩함으로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의 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 안에서 (혹은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 심방들 중 어떤 심방 안에서든) 영혼의 상태에 관한 영혼의 영성을 평가하면서 (이 뉴스레터의 전번 호의) 제10편의 끝에서 **2001년 10월 24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주신 메시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부분이 여기에 되풀이할 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영혼이 그가 처해 있는 심방을 추측할 때 또는 그가 심방들을 통해 그의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의 특별한 여정을 다른 영혼의 여정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가 이 메시지를 말할 때 이러한 평가 행동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심방에 있는지 알려고 평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심판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정중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정중에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사랑을 통한 완덕입니다. 다른 이들의 여정과 비교하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영혼의 여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목표는 사랑을 통한 완덕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개별적인 골프 스윙(golf swing, 골프 휘두르기)에 숙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수행하는 것을 항상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으로부터 둘째 심방과 뒤이은 심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명확하게 집중하는 영적인 삶의 한 양상, 곧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첫째 심방은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 곧 거룩한 사랑과 구원입니다. 둘째 심방은 신성한 사랑, 거룩함입니다. 뒤이은 심방들은 예수 성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심방들을 통한 전진에서 우리가 어떤 현 순간에 어느 심방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로부터 실망되고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탄에 의해 놓여진 이 속임수를 **2007년 7월 27일**에 메시지에서 더 한층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여러분이 한층 더 이해도록 돕기 위해 나를 보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영혼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심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십니다. 사실 영혼은 어느 현 순간에 두개 이상의 심방과 함께 상호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같은 미덕에 거스르는 무엇인가의 잘못을 정화하고 있는 동시에 [첫째 심방] 그 미덕을 증진시키고 있을 수도 [셋째 심방]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심방들에 있는 모든 기력(氣力)은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들에서 결합합니다.”

“정녕 영혼은 매우 자주 동시에 많은 성심방들에서 협력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그 자신이 첫째 심방에 들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영적 여정은 다면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각자의 거룩함의 깊이는 주어진 매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영혼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을 향한 다른 도전, 따라서 거룩함의

다른 깊이를 우연히 발견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심방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감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다른 하나의 함정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함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3년 12월 5**

일 메시지에서 복되신 어머니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은총의 현관 (Vestibule of Grace)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는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여정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 성인이 이 은총의 현관에 참석하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 성인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으로 영혼들을 따듯이 맞이하시는 은총의 현관은 각 영혼이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가득하다. 각 개인의 영적 여정은 각자의 회개 체험이 다른 것처럼 각기 다르다.”

“아직도 이 은총의 현관으로 들어가는 선택은 여전히 자유의지의 행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단 영혼이 들어가기를 선택하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그 안에 있는 동안 영혼은 그 자신의 오류들이

겸손으로 씻겨진다. 영혼은 내 아드님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몹시 매혹되어 그의 유일한 평화는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에 이르는 길로



ST JOSEPH'S VESTIBULE

이끈다.”

“영혼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요셉 성인이 초대하는 경험에 의지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성취감을 못 느낄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예측할 수 없는 본질 때문에 세상에 확실성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너희 자신의 영적 여정이 너희의 안전이 되게 하여라.”

은총의 현관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들어가기

전의 영혼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신뢰 가득한 내맡김으로써 평화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영혼의 자유의지가 첫째 심방 (그리고 뒤이은 심방들)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2001**

년 10월 24일 메시지에서 설명하셨던 것 처럼) (요셉 성인이 참석하는) 이 현관에서 주어지는 은총도 또한 영혼을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낙담되는 것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 심방들이 가져오는 거룩함이나 사랑 안에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고결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2013년 12월 6**

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 은총의 현관의 역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어떤 노력에서 낙담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현관에 반복해서 들어와야 한다. 매번 그들은 거룩한 사랑에 대해

아무리 작은 불만이라도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에는 나는 양심을 성찰하도록 각 영혼을 은총의 현관으로 다시 부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이 심방들을 통하는 더 깊은 여정을 억제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또다시 내 자비의 관문을 통과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의 마음의 가책 (양심 조명)은 모든 회개에 필수적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만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체 하는 것이 흔히 우리의 성심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이것은 비통한 내 성심을 슬프게 하는 진리의 타협이며 참된 거룩함을 억제한다. 덕행이나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의 결점이며 너희를 우리 성심의 어느 심방으로부터 현관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마음의 회개는 매 현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영혼이 한 심방에서 다음 심방으로 (예를 들면, 첫째 심방에서 둘째 심방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기를 택하면 택할수록 그는 더욱더 가장 작은 세속의 애착이나 거룩한 사랑에 대한 불만을 알게 됩니다. 이 애착이나 불만은 심방들을 통한 그의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가책과 더 큰 거룩함을 향하는 회개를 위해 다시 은혜의 현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첫째 심방에서 그의 가장 큰 잘못이 정화되고 둘째 심방으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심방에서 영혼이 더 친밀하게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면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그는 어떻게 이 더 작은 습관이나 애착이 더 깊은 마음의 회개가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요셉 성인은 **2014년 1월 25일** 메시지에서 더 깊은 마음의 회개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오로 성인의 회개 축일에 나는 하나 되신 성심 안으로 영혼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관은 마음의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 현관으로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이가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강화되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아퀴나스 성인이 **2001년 10월 24일**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을 때 영적 여정에서 목표는 “사랑을 통한 완덕”입니다. 이 목표는 영혼이 첫째 심방에서 둘째 심방으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더 깊이 진전하고 마침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기에 필요한 은총을 깨닫게 되고 (협조할) 때 가장 예민하게 체험됩니다.

2014년 1월 20일 메시지에서 복되신 어머니께서 첫째 심방이 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이 은총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은총의 현관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여정에서 영혼을 추진시키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에서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일치하도록 창조된다. 그럼에도 너희의 영적인 삶에서 결함들 때문에 도중에 길을 잃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것이 이 혼란의 시대 동안 하느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신성한 뜻으로 이끄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자애롭게 준비시키시는 이유다.”

“영혼이 이 영적 여정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빨리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감싸여진다. 매 현 순간을 너희를 하느님의 뜻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설계하신 은혜와 도전을 함께하는 은총의 한 기회로서 보기 시작하여라. 너희가 이 은총들에 협조하면 할수록 너희의 여정은 더욱더 쉬울 것이다. 이것은 은총이 마치 너희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같다. 아무도 여행중에 연료를 거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의 영적 여정을 위해 주시는 지도를 사용하여라. 요셉 성인이 나의 티 없는 성심인 첫째 심방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은총의 현관으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이 점을 **2013년 9월 18일** 메시지에서 되풀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개인의 거룩함은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거룩함은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나와 너희의 개인적인 관계이며, 모든 것이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키워진다.”

“너희는 여기 이 성지에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거룩한 심방들의 영성을 받고 있다. 이 여정이 하느님의 뜻을 향해 따라가는 너희의 안내와 길이 되게 하여라.”

“누구도 혹은 어느 것도 너희의 깊고 계속하고 있는 거룩함의 여정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라. 요즘 세상은 거룩함을 경시하고 이런 개념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내 자녀들인 너희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길을 따라 왔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에 점점 더 많이 내맡길 때 우리는 첫째 심방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 으로부터 둘째 심방으로 옮긴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심방에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가 더 가깝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많은 은총을 받으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별의 의식을 열어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매 현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뜻에 드리는 신뢰의 내맡김을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향하는 개인의 거룩함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총을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덕을 증대시키고 거룩함의 더 깊은 수준으로 추구하려는 욕망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이 추구에서 영혼은 둘째 심방에서 일정한 버릇과 세속적인 상황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필요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방해할 수 있는지를 우선 깨닫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2007년 9월 24일**의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설명하십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함에서 첫째와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여러분 자신을 걱정할 때, 이것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급히 여러분을 첫째 심방에서 몰아내고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염려하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의탁하십시오. 이것이 개인의 거룩함에서 첫째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모든 죄의 동기이고 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든 거룩함의 근본입니다.”

만일 영혼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포자기 혹은 자기포기로 알려진 과정에서 그 자신에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비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99년 7월 8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의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지성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다. 사랑은 먼저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너의 주변의 세상에 있어야 한다. 거룩한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너의 의지를 나에게 내맡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은총과 성덕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네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미덕을 모방하거나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 너는 거룩하고 덕이 높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이런 은총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포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애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 즉 우리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현 순간과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거룩한 무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무관심은 매사에 하느님께서 모든 상태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결정하신 최선의 상황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신뢰에 찬 내맡김이고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상황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자신에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99년 10월 16일**에 주신 긴 메시지 부분에서 이 신뢰 가득한 내맡김(trustful surrender)이 둘째 심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세목을 설명하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신성한 사랑에 바치는 봉헌기도에 대해서 예수 성심의 처음 두 심방들을 설명하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매야, 신성한 사랑인 성심중의 내

성심에는 많은 심방들이 있다. 각 심방 문은 자기포기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열려진다. 각 출입구는 너를 영혼이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하느님 뜻과의 일치와 심방에 도달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응할 때까지 더 깊이 신성한 사랑으로, 더 깊이 나의 성심으로 인도한다.”

“내 어머니 성심의 불꽃을 통하여 영혼은 그의 잘못과 결점을 인식한다. 자유의지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의 약점들을 극복하기로, 즉 그것들을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태워버리기를 결심한다. 그렇다, 신성한 사랑에 이르는 첫째 출입구는 거룩한 사랑이다 [첫째 심방]. 그것은 정화의 단계다. 영혼은 그의 앞에 놓인 길에 매우 열중하여 이 문을 열지는 모르나,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에 다시 첫째 문 밖에 있게 된다. 반복해서 그는 거룩한 사랑에 다시 위탁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그는 지나간 약점들에 더 적게 마음이 끌릴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피할 것이다. 이제 그는 신성한 사랑 [둘째 심방]으로 가는 첫째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일단 이 출입구를 통하면 그 영혼에게 큰 평화가 내린다. 그는 기도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는 현 순간의 은총을 많이 깨닫는다. 참으로 그는 내 성심에 의지하고 그 안에서 휴식을 찾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그는 소위 세속적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 그의 기쁨은 내 안에 있다. 그 영혼은 이 잔잔한 바다에서 더 자주 그의 욕망과 필요 사이에 차이를 분간하며 표류한다. 이 심방에서 영혼은 원하는 것이 많지 않다.”

“자매야 이제까지 내가 신성한 사랑에 바치는 봉헌기도에 관해 말해온 모든

것들을 공부하여라.”

일단 영혼이 둘째 심방에 들어가면, 평온의 바다에 잠겨진 후에 그 영혼은 일정한 버릇이나 속세의 애착을 보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음 심방으로 옮겨져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 더 진전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 10월 17일**의 메시지에 나타나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째 문, 곧 거룩한 사랑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너의 잘못을 들추어낸다. 내 성심의 둘째 심방은 너의 더 완전한 내맡김을 요구한다. 이 심방에서 사랑의 작은 결함이 드러난다. 영혼이 처음에 둘째 심방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때 잔잔한 바다를 표류한 후에, 영혼은 신성한 사랑 즉, 내 성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확실한 습관이나 애착을 볼 수 있다. 감정의 파도가 그를 앞뒤로 뒤흔든다.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은 무미건조를 체험한다. 다음 순간 그는 위안을 받는다. 그가 작은 애착과 무절제한 습관을 꾸준히 극복하면,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작은 잘못이나 습관 그리고 애착의 이 인식외에도, **2000년 1월 27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내 신성한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들어감에 따라, 나는 그들에게 덕에 대한 지식을,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각 덕의 깊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덕을 쌓으려는 갈망을 그들에게 퍼붓는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단지 구원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이 영혼들은 거룩함을 갈망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갈망한다. 그들에게는 이 갈증이 채워질 수 없는 것 같다. 덕들이 깊어질 때 영혼들은 내 성심의 다음 심방으로 더 가까이 이동한다.”

2000년 1월 31일에 덕을 증진하기 위한 이 굶주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서 신성한 사랑과 내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이동할 때, 그는 깊은 덕에 대한 갈망을 받는다. 영혼은 거룩함에 대한 욕망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다.”

“이 심방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더 경건한 삶으로 유인하면서 내 은총이 그에게 내린다. 영혼의 영적 욕망이 더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영적인 필요함이 될 때, 그는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이동한다.

2000년 3월 2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깊어지는 영혼의 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더욱더 나는 그에게 내맡긴다. 너희가 내맡기고 있으면, 그때는 덕이 풍부한 삶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성덕에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더욱더 성덕이 너희의 주요 부분이 된다.”

2000년 4월 7일 메시지에서 성심의 둘째 심방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추가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사랑의 계명들 아래 더 애정이 깊어질 때, 신성한 사랑과 내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영혼은 많은 조명을 받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 영혼은 나와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2000년 5월 20일 안토니아 성인의 메시지에서 성인께서는 영혼이 심방들을 통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이 ‘영적 여정 하기’ 시리즈의 제10편에서 1단계 구원이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으로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함, 둘째 심방을 설명하시는 2단계에서 안토니아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더 깊이 내맡김을 통해 예수 성심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사랑인 하느님의 뜻에 보다 큰 내맡김으로써 개인의 성화를 갈망합니다. 영혼은 그의 의지가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심방들과 신성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 이 열망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불꽃은 모든 무관심과 자기 만족을 태워버리고 영혼에서 가장 작은 애착을 씻어 깨끗이 합니다. **2000년 10월 20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둘째 심방은 거룩함의 추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신성한 사랑인 둘째 심방이 또한 거룩함으로 알려지는 이유입니다.

2000년 8월 후반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기본 지침서의 개요의 주제로 일련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8월 25일**에 주신 메시지에 둘째

심방에 들어온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메신저(messenger, 사자 심부름꾼)야, 이것이 둘째 심방에 대한 기본 지침서의 개요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더 깊이 내맡길 때 그는 신성한 사랑인 내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거룩함인 이 둘째 심방에 있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 지금 이 순간이 신성한 사랑에의 전념을 통해서 정화된다.
- 영혼은 그의 건강과 외모와 안도감을 내맡긴다.
- 영혼은 자신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또한 **2001년 1월** 후반에 주신 일련의 메시지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의 내실 지성소 (Sanctu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소책자,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계시: 비밀들이 밝혀짐’ (한국어 판, 2007) 에 사용되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에 내리신 둘째 심방에 관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의 각 심방은 보다 큰 자유의지의 단념을 통해서 접근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하여, 영혼이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접근할 때, 그는 그의 사랑의 순교를 시작한다. 즉, 그는 사랑의 제물로서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버린다.”

“내 고귀한 성심의 둘째 심방, 곧 나의 성심의 불꽃에서, 영혼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신성한 사랑의 불꽃은 영혼을 나에게서 분리시키는 성격의 작은 결함들을 드러낸다. 내 성심의 이 둘째 심방에서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의식한다. 그는 과거는 내 자비에 그리고 미래는 내 베푸는 은혜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은총을 받아들인다.”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닫고 대부분 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내맡김에 따라, 그들은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전반적으로 거룩함의 영적 여정의 이 부분, 곧 둘째 심방은 거룩함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영적인 완전, 완전한 사랑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성화로 알려진 이 거룩함의 완덕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선행들을 가지려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2002년 6월 1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밝혀집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은 오직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겸손의 통행 열쇠로 내 성심의 심방으로 더 깊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덕음의 진지한 실현이 영혼을 성화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혼은 그의 자유의지의 움직임으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으로 더 완전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 욕망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길이 보여질 것이다. 진정으로 더 거룩해지기 바라는 영혼이 더 깊은 거룩함을 성취하는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마음을 다 하여 거룩함을 요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도록 너희를 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2004년 3월 22일** 메시지에서 이 점에 관해서 되풀이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식은 완덕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려고 왔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들여다 보고, 그의 잘못을 이겨내기 위한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하는 영혼은 빠르게 완덕에 오를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 지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그 버릇과 결점을 알아보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겸손을 통해 완전한 거룩함을 얻으려고 노력함에서 영혼은 기꺼이 점점 더 많이 신성한 사랑의 정화의 불꽃에 내맡깁니다.

2003년 3월 8일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첫째와 둘째 심방에서 가장 여념없이 일어나는 거룩함의 정화 과정의 축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하십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여러분이 하나 되신 성심의 한 심방에서 획득된 모든 은총은

다음 심방으로 옮겨지고 증대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고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그의 죄악이 정화됩니다. 그 영혼이 둘째 심방, 즉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함으로 들어갈 때, 그가 첫째 심방에서 경험한 정화는 그와 함께 머무르고 지속됩니다.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가장 사소한 잘못이나 죄악을 훨씬 더 알게 되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점차로, 그 영혼은 완덕에 달하는 셋째 심방으로 끌어들여집니다. 덕행들은 지금 이 순간 즉, 첫째와 둘째 심방에서 불완전 상태의 인식을 통해서 증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통하여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 뜻의 왕국이 영혼 자체 안에 확립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정녕, 이 영적 여정은 인간의 마음 안에 집, 곧 영적 피신처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뜻의 왕국이 마음 자체에 설치될 때까지 한 블록(block, 벽돌 모양의 콘크리트 덩이)을 다른 블록을 기반으로 쌓아 올려집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매 현 순간에 예수님께,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드리는 신뢰 가득한 내맡김이나 위임은 영혼이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심방들을 통하는 이 거룩함의 여정을 급속히 전진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2002년 10월 27일**에 주신 메시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들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이것이 매

현 순간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매 현 순간 너희들의 거룩함을 위한 건축용 블록과 토대다. 이렇게 하여 나는 너희가 완덕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이 여정 중 내내 주님께서 계속하여 완전한 사랑에서 우리가 전진하고 도중에 직면하는 장애와 혼란, 어려움을 버티어내기를 위한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2003년 8월 15일**에 주신 다음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 현 순간에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과 내 성심으로 더 깊이 옮기는 은총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저버리지 않는다. 모든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나의 베푸는 은혜가 있다.”

“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의 전원에서 끊어진 사람들을 생각하여라. 내 어머니 성심과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은총의 흐름(전류)이 합선이 일어나서 타 버린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꾸러나가도록 내버려진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탐욕스럽고, 두려워하게 된다.”

“은총의 빛 속에서 걷는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나에게 내맡길 수 있는 이들이다. 섭리의 길은 그들 앞에 열려있다. 그들은 나의 신성한 성심으로 더 깊이 옮기면서 사랑의 빛 안에서 번영한다.”

끝으로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을 따라 계속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거룩함의 완덕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어떤 애착이나 습관,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찾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2005년 6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 안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거룩함의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언제나 작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여라. 즉, 숨겨져 있고, 서로간에 진심으로 친절하고 애정 어린 생각을 가져라.”

“파벌을 피하여라. 내가 우정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서로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적대하여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여라.

그런 영향이 분열을 불러오고, 이 선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개인의 거룩함을 약화시킨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나 양심의 조명을 통하여 개인의 어떤 잘못에 직면할 때, 그 잘못을 극복하도록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이것이 겸손한 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너희 마음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다시 읽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의 영성에 관한 이 메시지들을 검토하면서 보아온 것과 같이 거룩함에서 영혼의 정화와 완덕이 주된 관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을 하느님의 뜻에 순응과 일치에 목표로 이르게 하기 위해 영혼이 하느님께서 매 현 순간 제공하시는

힘과 은총을 빈틈없이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영혼을 하느님의 뜻과 일치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창조하신 하느님의 은총의 힘을 알게 됨에 따라, 영혼은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다음 심방, 곧 셋째 심방으로 끌어들이는지를 알아봅니다. 예수 성심의 셋째 심방은 완덕입니다.

이 ‘영적 여정 하기’ 시리즈의 다음 제 12 편에서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 메시지들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 계시 메시지들은 완덕으로도 알려진 셋째 심방의 영성(靈性)을 밝힙니다.

우리가 셋째 심방의 영성에 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를 위한 영혼의 항상 상태가 주로 영혼 안에 있는 덕, 특히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깊이 (또는 깊이의 결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이것은 영적 교만의 특징들의 목록이다. 영적 교만은 사탄이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자주 놓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영적 교만

1. “영혼은 그가 개선이 필요한 덕은 거의 없이 매우 거룩하다고 믿는다.”
2. “영혼은 그의 경솔한 판단을 분별력이라고 믿는다.”
3. “영혼은 그가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든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믿는다.”
4. “영혼은 영적인 문제에 다른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의 의견만을 계속 주장한다.”
5.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잘못을 본다.”
6. “영혼은 그의 기도 생활과 그의 희생을 자랑한다. 이것은 순식간에 독선으로 이끈다.”
7. “영혼은 영적인 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 너희가 빠질 수도 있는 이 암시들에 대해 주의하여라.”

(예수님 - 2012년 5월 15일)

어머니의 탄원...



루르드의 성모님 축일

2014년 2월 11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축일인 오늘, 실은 내 성심은 세계 곳곳에서 나의 많은 발현 들에 대해서 들어 왔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들, 너희 각자의 복지를 위해 온다. 나는 세상의 양심을 바로잡고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의 성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온다.”

“루르드에서 내가 베르나데트(Bernadette)에게 발현했을 때 나는 보속을 요청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들은 더 크게 사악해졌다. 보속을 요청하는 나의 요구는 탄원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마음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사탄이 날조한 (거짓으로 꾸민) 사악한 계획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루르드에서 내가 권하였던 샘물과 같은 물인 여기 내 샘에 오너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보속을 새롭게 할 힘을 줄 것이다. 너희를 고무시켜 기도하게 할 것이다. 악을 좌절시키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에 동참하여라.” ■

2014년 2월 2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격렬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기 시작하여라. 여기 이 성지에서 그리고 이 선교사업을 통해 쏟아지는 은총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양에 비례한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드님께로, 그리고 너희의 구원으로 더 가까이 이끌면서 너희에게 어머니로서 말하고 있다“

“거룩한 사랑에 투자하여라. 이것이 완전히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에 너희 헌신을 투자하여라. 만약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을 믿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지시를 따르고 내가 너희의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노력에서 너희를 돕게하여라.*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를 알고만 있다면 너희는 내 부름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마라타 샘으로 오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을 신성한 사랑을 닮도록 바꾸어라.”

“하느님의 정의는 심판하는 활동 속에 나타나고 있다.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통해 죄의 결과로서 일어날 환난을 완화시켜라.”

“나는 너희가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행동하고 그리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달성하기 바란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으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이신 신성한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이끄는 거룩함의 완벽한 인간의 모범과 본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서: (1테살 2:4) ---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성경) ■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6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된 평신도 사도 모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며, 이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공동 기도가 요구된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1 조항은 기술합니다: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주님, 여러 성인 성녀들이 이 마라나타 성지에 발현하십니다. 메시지들은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 오시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기도와 이 성지에서 천국이

제공하시는 평화에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자원 봉사, 의견과 제안

자원 봉사자 - 항상 필요합니다.

봉사 희망 연락처: volunteers@holylove.org

뉴스 레터 신청: 우편물 수취인 명부를 위해
성함과 주소를 c/o Newsletter
Editor에게 또는 이-메일로 등록
하십시오.

newslettereditor@holylove.org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newslettereditor@holylove.org

행사나 활동에
대한 정보: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org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께 건네어 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티 없으신 마리아님